

#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참여동기에 따른 만족에 관한 연구

- 지역주민과 관광객 방문집단간 비교 -

A Study of Tourist Satisfaction by Visitor  
Motivations: Case of the World Festival for Island  
Cultures - Jeju 2001

허 향 진\* · 홍 성 화\*\* · 송 재 호\*\*\*

(Huh, Hyang-Jin) · (Hong, Sung-Hwa) · (Song, Jae-Ho)

## 목 차

- I. 서 론
- II. 선행 연구
- III.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 IV. 결론 및 시사점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주관광대학 호텔경영과 전임강사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조교수

## I. 서 론

2001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행사비용이 투자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 역시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본 축제는 제주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분석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과보고서, 2001) 비판을 많이 받았다.

주로 관람객 수 및 축제를 통한 입장료 수입과 같은 수치에 의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1998년에 개최되었던 제1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비해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축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축제 기간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지 않아 섬문화축제가 관광객 유치에 위한 촉매역할을 하지 못했음이 나타나고 있어(제주일보, 2001)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지난 1회에서 오류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으리란 기대가 많았지만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고, 잠재 방문객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해 실제 축제 참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기존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가 매우 미흡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기존 제주지역에서의 축제에 대한 평가는 전문인력의 부족,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행사 후 주요 평가과정이 생략되고 이로 인해 축제결과에 대한 공과 실, 방문객들의 만족과 불만족 등의 원인규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문성종·고계성·홍성화, 2001)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을 크게 지역주민과 관광객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간에 축제에 대한 참여동기를 비교하고 나아가 축제참여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력을 끼쳤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행동 차원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 1. 축제 방문동기

동기화란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력으로서 학습, 지각, 나아가 집단과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동기는 또한 개인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동기와 성격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동기는 사람이 그의 주변세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격은 주변세계에 대한 일관된 반응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이란 행동이 습관적인 행태와 행동의 특성으로 설명되며, 반면 이러한 행동은 동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손대현·장병권, 1991).

Scott는 그의 연구에서 관광객의 동기는 유인 요소(pull factors)와 추진 요소(push factors)의 결합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증명하고 있고, Mayo 등은 관광지 선택에 있어 이성적 동기(rational motive)와 정서적 동기(emotional motive)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의 경우는 기후와 가격과 같은 유인 요소가 작용하고, 후자는 관광객의 사회심리적인 요인인 추진 요소가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Mayo & Lance, 1981).

이처럼 동기는 관광자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해 주는 여러 변수 중의 하나로써 연구가 되고 있는데, 비록 그것이 행동의 핵심적 근원이 된다고 할 수만은 없을지라도 행동의 배후에 존재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Crompton, 1979). 이처럼 동기분야는 관광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광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Lundberg, 1990), 특히 축제와 이벤트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Crompton & McKay, 1997).

축제 방문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 제시된 시사점을 보면 축제는 공급자인 축제조직자가 수요자인 축제 방문객들의 변화되는 기호 및 욕구를 더욱 깊이 고려해야 하는 수요자 지향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고(정강환, 1996), 이를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집단별 세분화를 통한 만족도 분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훈과 Kerstetter의 연구는 미국의 한 지역예술축제에 참가한 방문객을 지역주민과 관광객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간 축제의 참가동기, 축제참여 만족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미국의 센트럴 펜실베니아 예술축제 방문객들의 경우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객 집단 사이에 참여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축제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집단간 만족도 비교에 있어서도 두 집단 모두 평균값에서 높은 만족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관광객 집단이 지역주민 방문객들보다 더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연구결과에 따라 축제의

기획, 마케팅 등의 활동을 할 때는 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 집단간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관광객 만족

관광객 만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관광객들이 소비체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결과와 관광객 행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광소비 체험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를 가지고 관광객 만족을 바라보자면 이는 관광체험 후 관광전반에 걸친 사후 이미지를 평가하면서 관광객들의 태도분석에 의해 접근할 수 있고 (Lounsbury & Polik, 1992), 관광목적지에 대해 관광객이 사전에 가졌던 기대와 체험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Pizam, 1978) 또는 사전 기대와 사후 성과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불일치를 체험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복합적인 심리상태(Dann, 1979)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Pizam, Neumann, Reichel 등은 관광객들의 만족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광목적지에서의 7가지 경험요소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요인들의 만족의 평균값을 가지고 전체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반면, Van Raaij와 Francken은 관광객의 만족을 평가하는데 있어 관광활동 이전 갖던 기대정도와 관광목적지에서의 체험을 통한 성과간의 차이로 정의하면서 여기에서 야기되는 불일치를 가지고 만족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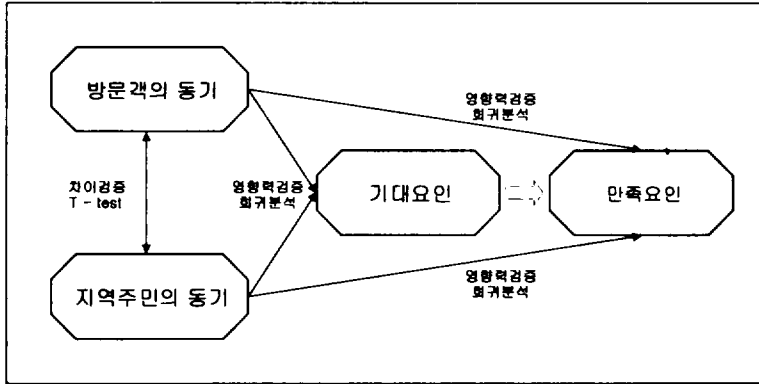
한편 Noe는 관광객들의 만족을 평가하는데 있어 참여동기, 기대와 성과간의 불일치, 쾌락적인 측면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참여동기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전에 관광목적지에 가지고 있던 기대심리와 관광활동을 하고 난 후 느끼는 체험을 통한 만족정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락적인 측면에 주목하였고 세 가지 변수를 종합하여 관광객들의 만족정도를 평가하였다.

# Ⅲ.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축제 참여동기에 따른 만족도 분석을 하고자 한 것이다. 축제 방문객들을 관광객 집단과 지역주민 방문객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간 참여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검토하고 이어 집단간 참여동기가 축제참여에 대한 사전

기대 및 참여만족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그림 3-1>은 연구설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3-1> 연구의 설계

## 2.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위해 축제가 열리는 기간인 2001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20 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질문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실증분석에서 이용된 표본의 수는 1,439명으로 이 중 지역주민이 703명, 방문객이 736명이었으며 <표 3-1>에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절차를 보면 우선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간 참여동기에 따라 동기요인이 기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으며, 우선, T-test를 이용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두 집단간에 참여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이어 각 집단이 참여동기요인에 따라 기대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 2-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변수인 축제 참여동기 항목과 기대·만족에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내적타당도를 측정하였으며,

## 6 産經論集

또한 각의 요인별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요인 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직각회전 중 varimax회전을 실시하여 요인적재량을 단순화하였다.

<표 3-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관광객	지역주민	전체	구분	관광객	지역주민	전체	
성별	남성	344	359	703	연령	20세미만	22	27	49
	여성	368	337	705		20~30세	230	355	585
직업	전문직/자유직	140	113	253		31~40세	206	210	416
						41~50세	162	83	245
						50세이상	88	24	112
					교육 수준	중졸이하	60	36	96
						고졸	230	311	543
	대졸	352	341	693					
	대학원졸	54	9	63					
	1차산업종사자	138	87	225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	50	60
						100~149만원	52	101	153
						150~199만원	72	89	161
200~249만원						66	124	190	
250~299만원						42	144	188	
300만원 이상						234	69	303	
학생	112	80	192	기타	38	17	55		
주부	12	8	20						
무직	38	17	55						

## 2-2.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 2-2-1. 참여동기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축제 참여동기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0 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요인이 4개로 묶여져 이 4개의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들의 분산으로 설명되어지는 전체 변량의 설명력은 50.987%이었고, 신뢰수준은 최저 .4825에서 최고 .7254로 나타났다.

<표 3-2> 축제 참여동기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비	신뢰 계수
Factor 1. 관심과 흥미		2.495	20.79	.6754
축제가면 무조건 좋아함	.707			
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음	.592			
각국의 심문화에 대한 관심	.629			
지방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심	.586			
Factor 2. 다양한 체험		1.474	12.29	.6555
다양한 볼거리	.750			
다양한 체험거리	.712			
다양한 전시물	.656			

요 인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비	신뢰 계수
Factor 3. 변화와 휴식		1.111	9.26	.7245
일상생활에 변화	.731			
스트레스의 해소	.752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	.573			
Factor 4. 친선도모		1.038	8.65	.4825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788			
동행인과 뜻깊은 추억	.678			

주: 유의수준: .000, 분산설명력 : 50.987

제1요인은 ‘축제라면 무조건 좋아함’, ‘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음’, ‘각국의 섬문화에 대한 관심’, ‘지방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심’ 등으로 묶여, ‘관심과 흥미’로 명명하였으며, 제2요인은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체험거리’, ‘다양한 전시물’ 등으로 묶여 ‘다양한 체험’으로, 제3요인은 ‘일상생활의 변화’, ‘스트레스해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묶여 ‘변화와 휴식’, 제4요인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동행인과 뜻깊은 추억’으로 묶여 ‘친선도모’의 요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 2-2-2. 기대 및 만족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기대 및 만족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1 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요인이 2개로 묶여 두 개의 요인을 가지고 기대와 만족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요인들의 분산으로 설명되어지는 전체변량의 설명력은 47.846%이었으며, 신뢰계수는 각각.6827, .5825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기대 및 만족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요 인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비	신뢰계수
Factor 1. 자기개발		2.048	29.26	.6827
자신의 정체성확인	.851			
삶의 지혜를 얻음	.861			
일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발견	.603			
Factor 2 새로운 경험		1.301	18.58	.5825
신비성체험	.704			
각국의 섬문화 이해	.680			
축제참가 경험의 축적	.566			
문화적 충격경험	.591			

주: 유의수준: .000, 분산설명력 : 50.987

분석 결과 ‘자신의 정체성 확인’, ‘삶의 지혜를 발견’, ‘일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발견’ 등이 제1요인으로 ‘신비성 체험’, ‘각국의 섬문화 이해’, ‘축제참가경험 축적’, ‘문화적 충격 경험’ 등이 제2요인으로 묶여 각각 ‘자기계발’과 ‘새로운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 2-2-3. 참여동기에 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집단간 차이분석

분석 결과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동기는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친선도모’의 네 가지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등은 95%의 신뢰구간에서 ‘친선도모’는 90%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3-4> 관광객과 지역주민 집단간 참여동기 차이분석

		평균	t-값	유의수준
관심과 흥미	관광객	2.866	-13.965	.000*
	지역주민	3.481		
다양한 체험	관광객	3.847	7.949	.000*
	지역주민	3.482		
변화와 휴식	관광객	3.195	-2.140	.033*
	지역주민	3.305		
친선도모	관광객	3.439	1.653	.099**
	지역주민	3.341		

\* P<0.05, \*\* P<0.1

지역주민은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의 요인에서 높은 수준의 평균값을 보인 반면, 관광객의 ‘친선도모’에서 지역주민보다 높은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2-4. 참여동기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분석 결과 관광객의 경우 ‘자기계발’에 대한 기대요인에는 ‘변화와 휴식’,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의 순으로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요인에는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관심과 흥미’, ‘친선도모’의 순서로 네 가지 변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자기계발’에 대한 기대에서는 ‘관심과 흥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에는 ‘다양한 체험’, ‘친선도모’, ‘변화와 휴식’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심과 흥미’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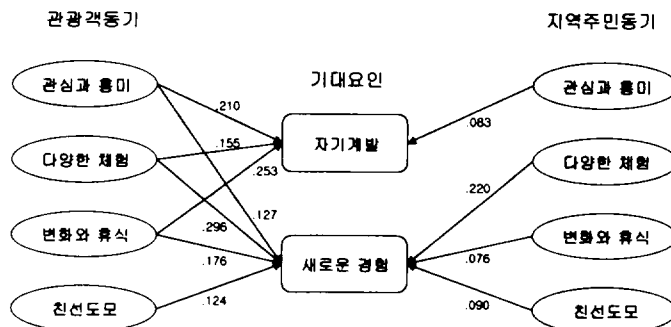
<표 3-5> 축제 참여동기가 기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 β 계수	t-값 (유의수준)	F-값 (유의수준)	F2
관광객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친선도모	자기계발	.210	6.061(.000*)	32.182(.000*)	.150
			.155	4.533(.000*)		
			.253	7.382(.000*)		
			.037	1.075(.283)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친선도모	새로운 경험	.127	3.725(.000*)	36.856(.000*)	.168
			.296	8.722(.000*)		
			.176	5.177(.000*)		
		.124	3.640(.000*)			
지역주민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친선도모	자기계발	.083	2.173(.030*)	2.157(.072**)	.110
			.042	1.113(.266)		
			.056	1.493(.136)		
			.040	.332(.740)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친선도모	새로운 경험	.023	.616(.538)	11.362(.000*)	.061
			.220	5.929(.000*)		
			.076	2.060(.040*)		
		.090	2.435(.015*)			

\* P<0.05, \*\* P<0.1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의 경우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관심과 흥미가 있는 놀이대상으로서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자기계발에 대한 기대가 크고,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방문객은 축제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관광객의 경우 동기요인들이 두 가지의 기대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동기요인이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독립적이며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참여동기가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검증

2-2-5. 참여동기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분석 결과 관광객의 경우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요인에는 '변화와 휴식', '관심과 흥미', '다양한 체험'의 순으로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새로운 경험'에 대한 만족요인에는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관심과 흥미', '친선도모'의 순서로 네 가지 변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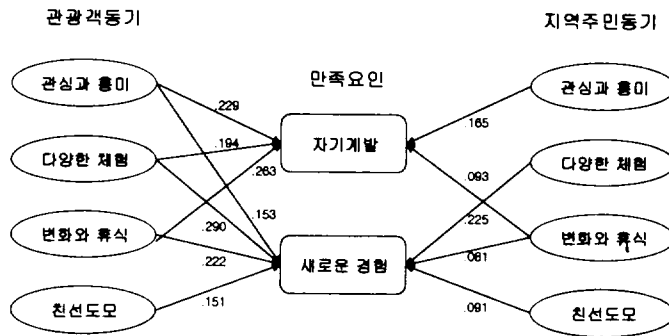
한편,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에서는 '관심과 흥미'와 '변화와 휴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만족에는 '다양한 체험', '변화와 휴식', '친선도모'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심과 흥미'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기대에 대한 영향력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관광객의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기대에 비해 더 많은 동기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에서 '변화와 휴식'의 동기요인이 추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3-6> 참여동기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 $\beta$ 계수	t-값 (유의수준)	F-값 (유의수준)	R <sup>2</sup>
관광객	관심과 흥미	자기계발	.229	5.903(.000*)	30.119(.000*)	.177
	다양한 체험		.194	5.057(.000*)		
	변화와 휴식		.263	6.826(.000*)		
	친선도모		.041	1.052(.293)		
	관심과 흥미	새로운 경험	.153	3.998(.000*)	33.875(.000*)	.194
	다양한 체험		.290	7.664(.000*)		
	변화와 휴식		.222	5.836(.000*)		
	친선도모		.151	3.983(.000*)		
지역주민	관심과 흥미	자기계발	.165	4.289(.000*)	7.069(.000*)	.101
	다양한 체험		.062	1.608(.108)		
	변화와 휴식		.093	2.445(.015*)		
	친선도모		.031	.342(.733)		
	관심과 흥미	새로운 경험	.027	.703(.483)	11.563(.000*)	.064
	다양한 체험		.225	5.935(.000*)		
	변화와 휴식		.081	2.165(.031*)		
	친선도모		.091	2.437(.015*)		

\* P<0.05, \*\* P<0.1



<그림 3-3> 동기가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그러나 기대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의 동기요인이 지역주민의 동기요인보다 여전히 복합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동기요인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관광객의 동기요인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β 값 참조)

#### IV. 결론 및 시사점

그 동안 제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 및 이벤트 행사들이 질적인 수준을 제고시키기보다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행사 개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채택한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역시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행동 차원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의 참여동기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방문객들을 크게 관광객 집단과 지역주민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참여동기가 축제에 대한 기대와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우선 두 집단의 섬문화축제 참여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지역주민 집단은 축제참여를 통한 다양한 체험,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 스트레스 해소 등에 주요한 동기가 있었고 관광객 집단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축제 및 축제 참여를 통해 뜻 깊은 추억을 남기기 위한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참여동기가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 보면 관광객 집단은 참여동기가

자기계발과 새로운 경험이라는 기대요인에 대해 변화와 휴식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라는 동기가 사전기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체험이라는 요소만이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가 축제에 대한 만족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관광객의 경우에는 참여동기 중 일상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축제와 어느 정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만족 정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동기 요인이 만족 요인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객의 경우는 참여동기가 기대 및 만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주민의 경우를 보면 참여동기가 기대 및 만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독립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향후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기획과정 및 행사 프로그램 제작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라는 집단의 심리적 행동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야 하겠고, 특히 관광객의 경우는 참여동기가 기대 및 만족요인에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특정의 축제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 축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축제 방문객들을 좀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 연구결과가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 고 문 헌

- 문성종 · 고계성 · 홍성화, (2001), “제주지역 이벤트축제 평가 분석의 틀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학연구』 제4호, 제주관광학회.
- 손대현 · 장병권, (1991), 『여가관광심리학』, 서울: 백산출판사.
- 이훈, Deborah L. Kerstetter.,(1997), “방문자들의 예술축제 경험과 평가분석 :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객자 비교연구”, 『한양대 관광연구논총』, 제9호.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01),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과보고서』.
- 제주일보, “제주세계섬문화축제 평가”, 2001, 6월 21일자 기사.
- A. Pizam, Y. Neuman & A. Reichel., (1978), “Dimensions of Tourist Satisfaction with a Destination Area”,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5(3).
- F. P. Noe, (1987), “Measurement Specific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Vol.9(3).
- Lounsbury, J. W. & Polik J. R., (1992), “Leisure needs and vacation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Vol. 14, No.2.
- John L. Crompton, (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No.4.
- Mayo, Edward J. & Lance P. Jarvis,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Effective Marketing and Selling of Travel Service*, MA:Boston, CBI.
- W. F. Van Raaij & D. A. Francken, (1984), “Vacation Decision, Activities and Satisfac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1-1.